

CASA

decorating
shopping
design
lifestyle

LIVING

차분하고 단아한 아름다움
Neutral Color Effect
공간을 스타일리시하게 만드는 바 스톨
리빙 맵 업데이트
가로수길 리빙&라이프스타일 습 24

엔틱 테이블웨어와 꽃의 만남
Blooming table
어여쁜 당신, 그린 피그말리온
새해,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몸속 독소 빼내기



AUDIO ROOM DESIGN 9

라이프스타일별 홈 사운드 시스템 추천

정가 7,500원

ISSN 1228-8993

01





밤, 2008

문성식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상에 대한 섬세하고 예민한 기억

강렬한 시각적 자극과 재기 넘치는 쾌활한 아이디어가 미술 감상에 큰 즐거움을 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어떤 작품은 나직하고 세심한,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그에 못지않은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연필과 색연필, 아크릴 물감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질료들로 보여주는 문성식의 세계는 후자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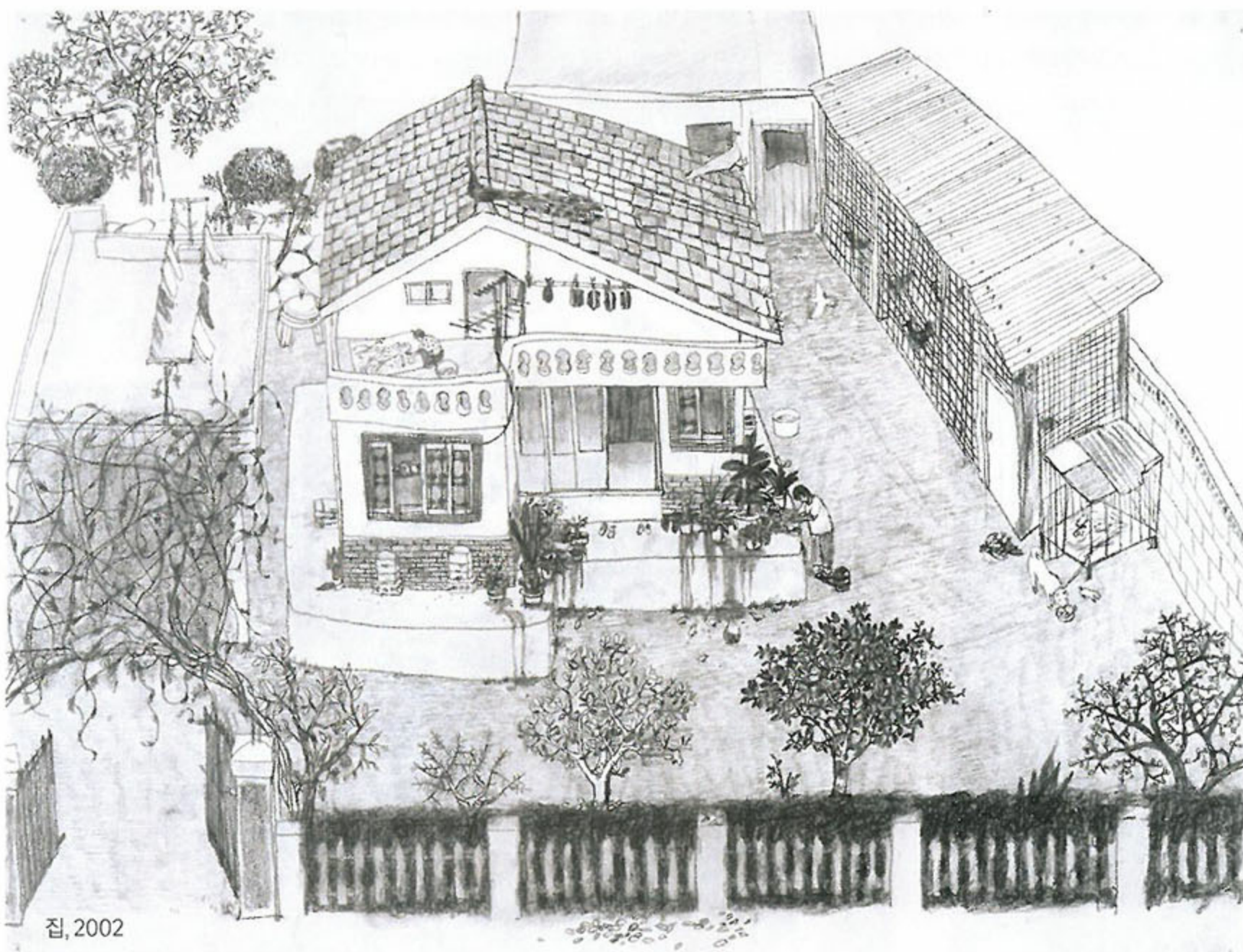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고요하면서도 명징한, 하나의 목소리를 건져 올릴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해 진지하고 따뜻하게 읊조리는 낮은 허밍이다. 누군가에게만 특별히 일어나는 것도 아닌, 그저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상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재해석하는 작가의 허밍 말이다.

일찌감치 예술계의 주목을 받은 작가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차분하고 성찰적인 시선을 견지하며 차근차근 자신의 작업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삶, 그리고 죽음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만고불변의 소재에 대해 그는 구태의연한 감상을 한 자락 없기보다는 현시대의 대기(Atmosphere)를 담고 인간사의 스펙트럼에 대한 따뜻한 묘사를 보여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미지제공 문성식



늙은 아들과 더 늙은 엄마, 2013



집, 2002